



MWC 2010 REPORT

2010.2.15~2.18
Barcelona, Spain

ehddn1

MWC 2010 REPORT

모바일전략팀 금동우

2010년 2월 15일 ~ 2월 18일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2010 전시회에 참관하여 확인하게 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정리해 본다. 이번 전시회 참관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전시 부스를 통해 참가한 기업 이외에도 방문객으로 참관한 다양한 한국 IT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바일 환경으로 흘러가는 세계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 시장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몇몇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모바일 전략을 되돌아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Summary]

1. 더욱더 심화되는 모바일 플랫폼 경쟁

아이폰 출시 이후 전세계적인 사용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애플 OS X를 비롯하여 오픈 플랫폼으로 다양한 제조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차세대 OS 안드로이드, 여기에 전세계 휴대폰 2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플랫폼으로도 이어나가려는 삼성전자의 BADA 플랫폼과 전통의 강자 MS의 Windows Mobile 7, 노키아의 Symbian과 RIM의 블랙베리 OS까지 그야말로 충주전국시대에 접어들

2. 휴대폰 제조사들의 힘겨루기 본격 돌입

오픈 플랫폼과 마켓을 기반으로 잇혀져 가던 모토로라의 대반격 예고, 다양한 컨텐츠와 솔루션을 선보인 블랙베리, 다채롭고 풍부한 단말 라인업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중국 기업들(HUAWEI, ZTE)과 기존 강호인 삼성전자, HTC 간 치열한 단말 승부가 점입가경

3. 4G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력/브랜드 홍보각축

미래 이동통신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LTE 상용화 전시 기업들간의 기업홍보 및 협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이 수시로 진행될

4. 미래 먹거리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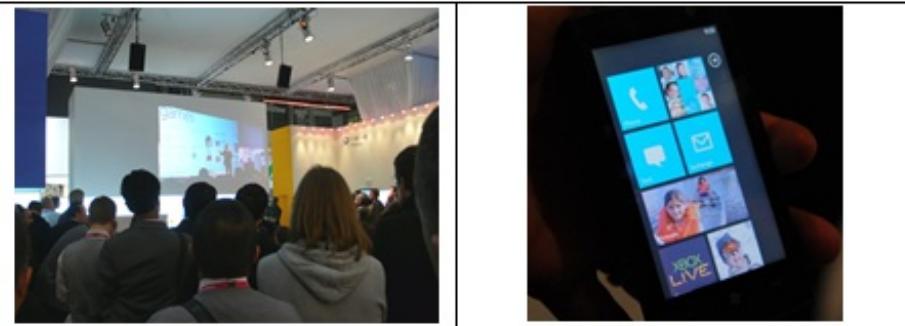
유난히도 지도 관련 부스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다양한 단말 환경에서의 지도 서비스들이 가까운 미래에 퀄리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싣어줌

[전시회 주요 이슈]

1. 플랫폼

1) 베일에 가려져었던 WM7의 등장 – MS

▶ MS 부스와 WM7의 특특한 UI



- MS CEO 스티브발머의 등장과 함께 WM7 설명이 진행되면 시간, MS 부스는 운집한 참관객들로 인해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음
- 큰 주목을 받은 부분은 역시 새로운 UI 체계, 윈도우즈폰 허브(Windows Phone Hubs)
- 전체 Phone, People, Pictures, Games, Music+Video, Marketplace, Office의 7가지 타일이 제공되는데, 시작화면에 라이브 타일(Live-tiles)을 적용하여 실시간 업데이트 된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음 (친구의 타일을 생성하면, 친구의 최근 업데이트 내용 확인 가능)
- Games 허브에서는 XBOX의 온라인 기능인 XBOX LIVE가 휴대폰 최초로 연계되어 게이머 프로필 및 아바타 정보 등에 접근 가능 (향후 XBOX 360의 게임이 스마트폰에서도 동작되도록 진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모든 윈도우폰 7 시리즈 단말에는 자사 검색엔진 '빙(Bing)'이 탑재될 예정
- 파트너사로는 AT&T, Verizon, Telefonica, Telstra, T-Mobile USA, Vodafone, Sprint, ORANGE, Telecom Italia(이상 이동통신사), 삼성전자, LG전자, Dell, HTC, HP, Sony Ericsson, Toshiba, Qualcomm(이상 단말제조사) 등이 발표되었는데, 특이점으로는 작년 행사에서 Windows Mobile 6.5 발표 시 파트너사로 소개된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모바일, 월컴 등 일본 이동통신 기업 및 국내 이동통신 기업이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일
- 개발 관련 상세 정보는 3월말에 개최될 MIX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

2) 가장 큰 규모의 부스로 참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BADA - 삼성전자

▶ 삼성전자의 대규모 부스



- 300평 규모의 전시관(8층)을 마련한 삼성전자는 독자 플랫폼인 BADA를 탑재한 스마트폰 'WAVE'를 처음 공개함 (GT-S8500)
- 18개 컨텐츠 분야를 소규모 부스로 마련하여 각각 시연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 WAVE폰 외에도 다양한 OS의 삼성전자 단말기들을 선보이며,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제조 사업을 어필함
- LTE 및 와이브로 관련 장비, 삼성앱스(오픈 마켓 개념)와 넷북 전용 부스 등도 함께 전시 함

▶ BADA용 키퍼 앱 부스 및 지도 서비스 'My Places(WAVE폰)'



- 각 컨텐츠 부스마다 협력사 담당자들이 직접 삼성 유니폼을 입고 자사 컨텐츠 설명을 주도함 (그만큼 협력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컨텐츠 수급에 주력하겠다는 의지인데, 이호수 부사장은 올 한해 50개국 이상, 2만개 이상의 삼성앱스 플랫폼과 어플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음)

- WAVE 단말에서 처음 선보인 통합형 메시징 서비스 '소셜 허브(Social Hub)'도 주목받았는데, 휴대폰 주소록을 통해 해외 주요 사이트의 이메일, SNS, 메신저 등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실시간 업데이트, 이메일 작성, 채팅 등을 주소록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삼성이 협력사(데카르트)를 통해 지도 및 스트리트뷰를 구축하여 BADA 플랫폼에 기반 탑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My Places라는 서비스를 통해 처음 선보임 (친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가 올린 지도위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음)

2. 제조사

1) HUAWEI & ZTE & Haier

▶ HUAWEI와 ZTE의 규모 있는 부스



-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HUAWEI와 ZTE의 경우, MWC 2010의 핵심부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가까우면서도 중앙 위치에 비교적 큰 규모의 부스를 마련함으로써 전시장 내에서 참관객들을 맞이하는 허리 역할을 담당하였고,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단말 라인업 뿐만 아니라 3G, 4G 대용 장비들도 대거 선보이며 관련 기술력을 과시하였다.
- HUAWEI의 경우, 중국의 삼성전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번 MWC 2010에서는 스폰서 기업으로 참여했는데, 1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HUAWEI 부스를 들러보고 "만만치 않은 경쟁자"라고 한마디 하여 화제가 되기도 함

▶ HUAWEI가 선보인 다양한 단말라인업과 안드로이드 UI



- 세계 최초의 HSPA+ 안드로이드 단말 등, 안드로이드 대용 단말기들을 대거 전시함 (오픈 플랫폼 및 마켓 활성화 기대에 따른 제조사들의 기대 실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HUAWEI 단말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HTC와 같이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하드웨어 자체가 럭셔리 하다거나 견고함이 둔어나지는 않았음. 다만, 통신장비업체가 작년 행사에서도 선보이지 못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추고 당당하게 스펜서 기업으로 참여한 것만 보더라도, 머지않아 타 제조사들을 위협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음

▶ Haier도 스마트폰 대열에 합류



- 이미 지난 2006년경부터 휴대폰을 제조해 오기 시작하여 리눅스 기반의 스마트폰, 넷북까지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가전제품 브랜드 Haier에서 작년 WM6.1 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인데 이어, 올해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라인업을 선보임
- 중국 제조사들의 성장을 눈여겨봐 두어야 할 부분임

2) 중흥기를 다시 한번 꿈꾸는 - 모토로라

▶ 단말, 기술 및 비즈니스를 별도로 마련한 모토로라 부스



- 유럽 시장부터 다시 공략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카드를 꺼내 든 모토로라는 드로이드의 세계 시장용 버전인 '마일스톤'을 비롯하여 국내에 출시된 '모토로이' 등을 대거 선보이며 안드로이드 시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마일스톤'은 안드로이드 2.1을 지원하는 유럽 최초의 단말로서 3월 중 출시 예정임
- 6종의 저가폰 공략 모델 WX 시리즈는 물론 '클리어 XT' 제품도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단말 콘텐츠 플랫폼 MOTOBLUR(모트블러)가 탑재되어 있음 (모트블러는 삼성전자의 소셜 허브와 유사 개념으로 전화번호부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Status 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향 단말에는 아직 탑재 계획이 없다고 함)

3. 4G

1) 미래 이동통신망의 Best Partner는 우리

▶ 4G망에서의 다양한 시연을 보이는 부스들



▶ LTE 관련 장비와 모트로라 흥보 부스



- 모트로라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흥보와 더불어 다양한 망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케이스별로 흥보함으로써 여러 환경에 최적화된 단말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함

4. 주요 솔루션

1) 지도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들

▶ 내비게이션과 지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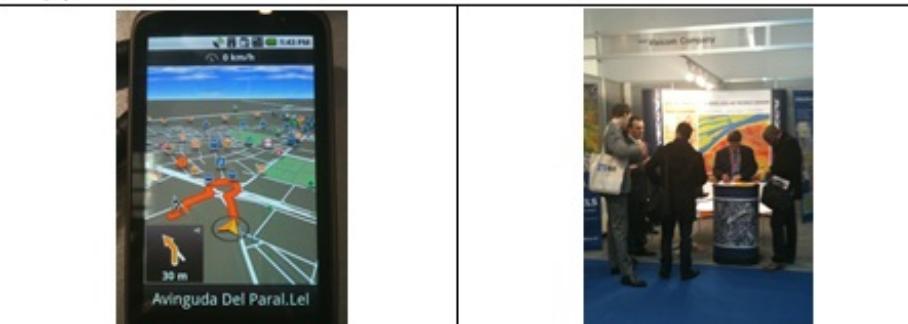
- 이미 전세계는 물론 국내에도 전자지도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나브덱에서 스마트폰에 포커싱 된 지도 컨텐츠 솔루션 및 'Nav n Go' 브래드 적극 흥보
- DIGITAL GLOBE에서는 다양한 고화질의 위성사진, 3D 사진, 세계 둘고 이미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데, 검색과 장소정보 등 지도 기반의 여러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MWC에 참가 (<http://www.digitalglobe.com>)
- DIGITAL GLOBE의 위성 사진 데이터는 고퀄리티의 이미지와 대형 스크린을 통한 흥보로 지나가면 참관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데 성공함

▶ 다양한 스마트폰 플랫폼 내비게이션



- 유럽시장에서 TOMTOM, GARMIN과 더불어 휴대용 내비게이션 시장을 놓고 경쟁 중인 NAVIGON에서 다양한 스마트폰 플랫폼에 최적화된 휴대용 내비게이션을 다수 선보임
- 작년 8월 TOMTOM사에서 아이폰용 GPS 기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 것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아이폰용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인 'Navigon Mibile navigator'를 출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이 감점일
- HTC HD2에서 WM 6.5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직접 동작시켜 본 모습(右)

▶ 기타



- NAVIGON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구동 모습(左)과 우크라이나의 차량용/웹용 지도, LBS, GPS 내비게이션 업체 visicom company (<http://visicom.ua/en/about/>)

2) 인식 기반 솔루션들

▶ 바코드 인식 솔루션



- 바코드 기반의 정보 인식 및 가격비교 솔루션 'mobiletag': 신시장 개척 차원에서 적극 홍보를 진행함
- 주목할만한 부분은, 3가지 국제 표준 바코드(1차원, 2차원 데이터마트릭스, 2차원 QR코드)를 모두 reading 가능하고, 애플 앱스토어/블랙베리 앱월드/안드로이드 마켓/노키아 오비스토어/윈도우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임 (www.mobiletag.com)

▶ 음성인식과 문자인식



- 음성인식 솔루션은 'Nuance(뉴앙스)'가 유일하였음 (아직은 뚜렷한 경쟁사가 없는 상황)
- 문자인식 기반의 번역 솔루션 'ABBYY(어비)'도 주목 받음. 국내 기업인 디오텍이 협력사로서 현장에서 ABBYY 부스에 DIOTEK 간판을 걸고 함께 홍보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3) 기타 특화 솔루션

▶ 손쉬운 크로스플랫폼 변환 솔루션



- 2006년도에 여러 플랫폼 환경에서 빠르게 개발 대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킷 mBricks 등장 이후 winner of Telenor Partner Prize for 2009 수상 (<http://mbricks.no>)
- streamezzo에서도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 쉽게 대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킷을 선보임 (<http://www.streamezzo.com>)

▶ 충전 카트



- 충전용 단말 케이스와 충전 전용 매트만 있으면 여러대의 단말기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매트 상용화 (www.powermat.com)
- 에너자이저에서도 독자 부스를 마련하여, 스마트폰 환경에서 가장 큰 이슈거리인 배터리 문제를 보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배터리나 각종 충전기들을 선보임

▶ eye-controlled Earphone



- 매년 특별한 연구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는 NTT도코모가 올해에는 'eye-controlled Earphone'을 선보임
- 귀에 이어폰을 끼운 후,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눈동자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둘째의 움직임을 파악해 이어폰의 좌우 패턴을 다르게 조절해 주는 장치

=====

<관람총평>

이번 MWC 2010의 최대 화두는 '플랫폼'

1. 플랫폼 경쟁과 더불어 내부 UI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 미리 made되어 있어 확장이 어렵던 피쳐폰 환경과 달리, 오픈 플랫폼 환경에서는 사용자에게 주도권이 있다 보니 제조사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쟁도 오래가지 않아 재편될 것임)
3.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내부 UI를 자사 맞춤형으로 가져감에 따라,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단지 단순 CP 개념으로 전락해 벌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탑화면 점점 확보의 한계)
4. 플랫폼이 다양해 지면서 특정 플랫폼에 주력하기 어려운 환경이 도래하여 서비스 개발업체들에게는 전략적 선택과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상반기에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플랫폼이 우세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의 bada 플랫폼도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가 될 것으로 보여짐)
5. 플랫폼 다변화로 인해 크로스플랫폼을 손쉽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킷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모바일웹 환경의 대용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6. 오픈 플랫폼 환경으로 갈수록 구글이나 애플, 기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빠른 진화와 성장이 국내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국내 기업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노출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